

2020년

부산교구 중·고등부

공동비전과 Cell-Unit 운영 지침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 목 차 >

## 1. 부산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System

가. 부산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System ..... 1

## 2. 공동비전 :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사랑하는 주일학교 공동체 만들기

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 2

나. 구체적인 노력방안 ..... 3

## 3. Cell과 CÜM이 만날 때

가. Cell의 역사 ..... 4

나. CÜM의 역사와 발전 ..... 5

다. CÜM을 통해 Cell의 목적을 구현한다. .... 6

라. CÜM으로 조직화 된 Cell ..... 7

마. 나눔교리를 통한 Cell과 Unit 진행 ..... 9

1) 나눔교리 원칙 ..... 9

2) 나눔교리에 대한 설명 ..... 10

3) 나눔교리 진행자의 기본자세 ..... 11

4) 발표하는 청소년의 요령 ..... 11

5) 나눔교리 전 지켜야 할 원칙 ..... 11

6) 말씀나누기 정리하기 ..... 13

7) 나눔교리 변경사항 ..... 12

8) 나눔교리 순서 ..... 13

사. Unit 운영 수칙 ..... 14

## 4. 제52차 Leadership Training

가. 사랑한다는 말은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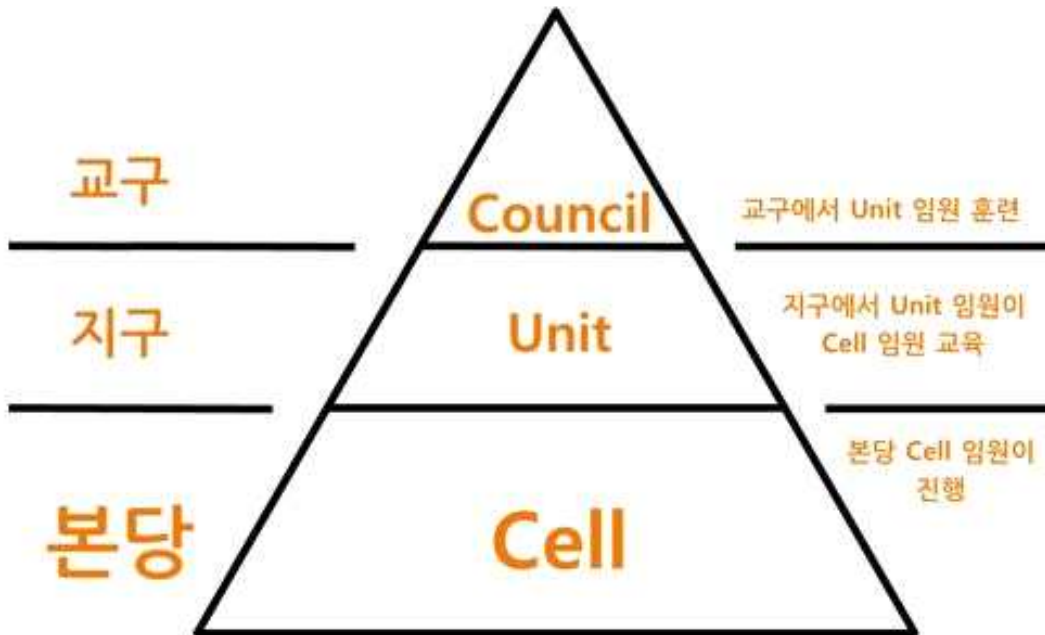
나. 의사소통 강의 ..... 16

다. MEMO ..... 22

# 1. 부산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System

## ○ ‘부가고연’이란?

- ‘천주교 부산교구 고등학생 연합회’의 줄임말이며, 본회는 개인성화와 학생의 사도직 수행과 학원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 ○ ‘카운셀(Council)’이란?

- 교구 내 본당 주일학교의 고등학생과 일반학교 고등학생의 가톨릭 학생회가 연합하여 조직된 교구학생들의 최고 의결기관(Unit의 상위 기관)으로서 고등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신앙활동을 기획하고 권장한다.
- 각 Unit의 장·차장이 회원이 되어 매월 1회 회합을 실시한다.

## ○ ‘유니트(Unit)’란?

- 5~10개의 Cell로 구성된 지구 단위의 의결기관으로서 Council에서 결정된 사항 전달 및 각 Cell의 상호 회합 경과와 도움이 되는 의견을 주고 받고, 지구의 주일학교 행사를 통하여 Unit의 단합과 본당 및 학교 Cell의 활성화를 돕는다.
- 각 단위 셀(Cell)의 의장과 부의장이 회원이 되어 매월 1회 회합을 실시한다.

## ○ 셀(Cell)이란?

- ‘세포’란 뜻으로 가톨릭 학생 운동의 기본적인 활동 단위의 회합을 말한다. 이 회합에서 먼저 리더를 양성하여 그들로부터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학생 사도직을 수행할 사도를 양육시킨다.
- 각 본당 주일학교 학생이 회원이 되어, 매주 1회 회합을 실시한다.

## 2. 공동비전 :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사랑하는 주일학교 공동체 만들기

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귀한 존재이다.

### 1) 청소년의 노력

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

나)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라.

다) 자신이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친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라.

### 2) 지도자의 노력

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나) 청소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다) 청소년을 훈육하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라.

라) 과거의 경험만으로 청소년을 통제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라.

## 나. 구체적인 노력방안

### 1) 청소년 리더 양성

구체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Leadership Training에서는 각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의장단(의장, 부의장 등)이 참여하여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소통 방법 및 행정서류 작성법을 익힌다.

‘Council - Unit - Cell’의 체제를 통해 청소년들 안에서 리더를 양성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음화를 이룬다.

### 2) 나눔교리를 통한 Unit와 Cell 강화

Council과 Unit에서 나눔교리를 훈련한다. 나눔교리를 미리 해보면서 Unit나 Cell에서 원활하게 나눔교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끈다.

나눔교리는 ‘하느님 말씀을 새기고, 나누고, 가꾸는’ 교육으로써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교리지식은 CÜM을 통한 별난교리와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시행한다.

### 3)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 유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친구들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친구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소통하며, 주위의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한 친구들은 주위에서 잘 챙겨주며 Cell, Unit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3. Cell과 CÜM이 만날 때

#### 가. Cell의 역사

##### 1) 정의

Cell이란 ‘세포’란 뜻으로 가톨릭 학생 운동의 기본적인 활동 단위의 회합을 말한다. 이 회합에서 먼저 엘리트를 양성하여 그들로부터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학생 사도직을 수행할 사도를 양육시킨다.

##### 2) 유래

Cell의 유래는 세계 평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세계 평화 운동의 기원은 1887년 교황의 인가를 얻어 유럽지방에서 조직된 학생회의 출발에 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란 말은 교황 비오 11세(1932-1939)께서 당시의 학생 대표들에게 세계 평화를 호소하면서 “너희들은 오늘날의 ‘팍스 로마나’다”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팍스 로마나란 문형은 로마제국이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져있던 유럽의 민족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켜 이룩한 평화를 이룬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팍스 로마나에 담긴 의미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 사상을 토대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다.

Cell은 필리핀에서 팍스 로마나 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실시하던 것을 1960년 필리핀 세계 대회에 파견된 우리 대표단에 의해 도입되어 우리나라 성격에 맞게 고안된 것이다. 부산교구에서는 교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 나. CÜM의 역사와 발전

CÜM은 2007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리서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으로 출발했다. 당시 어려운 교리교육 현실(교리교사 부족 현상, 짧은 임기, 부족한 교사 리더십, 교리에 대한 오류 등)을 개선하고자 <복음 말씀을 통한 나눔>으로 한 지금의 나눔교리를 시작한 것이다.

CÜM의 모티브는 <청소년의 나눔>이다. 주일 복음말씀을 나누면서 청소년에게 <신앙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청소년의 나눔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읽고,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둘이나 셋이 모여서 기도 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면 청소년의 말씀 나누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CÜM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느끼는 청소년이 되자”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그분을 느끼는 것에는 아직 서툰 청소년이 많다. 따라서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는 CÜM 교재를 통해 ‘주일 복음 말씀을 통한 나눔교리’를 시작하였다. 나눔교리의 핵심은 복음서를 읽고 서로의 생활을 반성하고, 자신이 느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CÜM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하였다. 성경, 성인, 윤리, 성사, 교리 등과 같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 중이다. CÜM이 지향하는 목표는 재미있는 교리시간, 기다려지는 교리시간, 유익한 교리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 다. CÜM을 통해 Cell의 목적을 구현한다.

### [Cell의 목적 1] 회원의 개인 성화와 종교 교육

Cell 회원 개인의 성화는 CÜM을 통한 나눔교리로 진행한다. 나눔교리는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말씀 나누기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교리지식은 CÜM의 별난교리를 통해 교육한다.

### [Cell의 목적 2] Cell 회원의 선교

Cell 회원은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넘어 다른 회원 혹은 비회원에게도 신앙을 전하도록 힘쓴다.

- 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를 열심히 하게 하고,
- 나) 열심히 한 친구를 더 열심히 하고 하고,
- 다) 비신자인 친구를 신자가 되게 한다.

### [Tip] CÜM의 활용

따라서 CÜM은 교리시간에만 국한된 교리서가 아니다. 성당에서는 교리서로, 학교와 학원에서는 선교 책자로서, 개인에게는 신앙 잡지로 활용 할 수 있다.

CÜM은 본당 교사실 책장이 아니라, 항상 청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

CÜM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CÜM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 라. CÜM으로 조직화 된 Cell

### 1) 단위 썸(Cell) -> 각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단위 Cell은 유사한 지역 본당, 학교, 학년, 혹은 학급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그 수는 8-12명으로 한정하고 그들 중에서 의장과 총무를 선출하며 주 1회 회합을 갖는다. 단, 본당 사정에 따라 인원은 차이를 둘 수 있다. 의장은 Cell을 대표하고 일반적인 소집, 회의 진행 등을 맡으며, 총무는 제반 기록, 경비, 회의록 등을 책임질 뿐 아니라,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그리고 어느 Cell이건 반드시 지도자를 모시도록 되어있다.

현재 부산교구에서는 본당별로 Cell을 구성하며, 총무 대신 부의장을 선출한다. 또한, 학년 또는 인원 에 따라 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본당 사제가 지도자를 맡으며, 분반별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 2) 유닛(Unit) -> 지구 장, 차장과 각 본당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

Cell이 완성되면 5-10개의 Cell로 구성된 Unit가 조직된다. Unit는 각 단위 Cell의 의장과 부의장의 모임으로 월 1회 회합을 가지고, 각 Cell의 상호 회합 경과와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주고받는다. 물론 여기에서도 장과 차장을 선출하며 지도자를 모셔야 한다. 아울러서 Council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전달사항을 알려주고, 교구와 지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지원한다. Unit는 지구 체육대회나 개강미사와 같은 행사를 통해 Unit의 단합과 본당 혹은 학교 Cell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현재 부산교구는 청소년의 시간상의 문제, 지도자 및 현 교구의 형편상 14개 지구(부산 11개 지구, 울산대리구 3개 지구)로 나누어 Unit를 구성하고, 월회합 시 다음 주의 복음을 주제로 나눔교리를 시행한다. 지도자는 각 지구 중고등부 담당 사제가 맡으며, 각 Unit에서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 3) 카운실(Council) -> 회장단과 각 지구 장, 차장으로 구성

각 Unit가 모여서 구성되는 상위 기관이 Council이다. 교구에 하나의 Council을 두고 교구 지도자가 있으며, 교구에 속한 모든 Cell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Council에서는 각 Unit의 장, 차장이 모여서 의장과 총무를 선출한다. Council은 월1회 회합을 가지고, 각 Unit의 상호 회합 경과와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주고받는다. 아울러서 교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지원한다.

현재 부산교구의 경우 Council은 '천주교 부산교구 고등학생 연합회(부가고연)'를 의미하며, 매년 정기총회를 열어서 모든 단위 Cell의 의장, 부의장이 회장단(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기획차장)을 선출한다. 월회합 시 다음 주의 복음을 주제로 나눔교리를 시행하며, 청소년사목국 중고등부 담당 사제와 수녀, 교사가 총괄지도 한다.

### 4) Cell 로고

삼각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상징한다. 삼각형 안에 'P'와 'R'은 Pax Romana의 약자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차길 바라는 영원,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영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 마. 나눔교리를 통해서 Cell과 Unit 진행

### 1) 나눔교리 원칙

가) 나눔교리는 강의가 아니라 나눔이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 6,6)

나) 진행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반자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회 6,15)

다) 청소년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 5,12)

라) 나눔은 진행자의 솔직함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에페 4,25)

마) 강의준비(교리)만큼 청소년관리(친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1요한 1,3)

## 2) 나눔교리에 대한 설명

### 가) 나눔교리는 강의가 아니라 나눔이다.

- (1) 신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염된다.
- (2) 배운 것보다는 나눈 것이 더 오래간다.
- (3) 청소년들은 나눔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깨라.
- (4)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면, 3분 정도로 요약해 준비하라.

### 나) 진행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반자다.

- (1)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칠 진행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 친구다.
- (2) 청소년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3) 진행자는 청소년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친절해야 한다.
- (4) 진행자는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 다) 청소년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다.

- (1) 청소년은 생각보다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2) 청소년은 겸손하지 못한 진행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 (3) 청소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며 비판하지 마라.
- (4) 진행자는 청소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 라) 나눔은 진행자의 솔직함에서부터 비롯된다.

- (1)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마라.
- (2)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라 말하라.
- (3) 나눔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4) 나눔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라.

### 마) 강의준비(교리)만큼 청소년관리(친교)가 중요하다.

- (1) 진행자는 청소년을 1주일에 단 1시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2)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반드시 개별 청소년과 상세한 면담을 하라.
- (3) 교리 3일 전에는 청소년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겨라.
- (4) 청소년 관리와 관련된 관찰(면담)노트를 2주일에 한 번 작성하라.
- (5) 매달 CUM 교재를 나눠줄 때, '하늘에서 온 편지'를 잊지 말고 적어라.

### 3) 나눔교리 진행자의 기본 자세

- 가)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 나) 귀 기울여 듣되, 판단하지 마라.
- 다)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의하라.
- 라) 발표를 꺼리는 친구에게 한 번 권유하되 억지로 시키지 마라.

### 4) 발표하는 청소년의 요령

- 가) ‘우리’가 아닌 ‘나’라는 표현을 쓰게 하라. (‘I’ message)
-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어라.
- 다)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도록 약속하라.

### 5) 나눔교리 전 지켜야 할 원칙

- 가)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청소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주일학교 빠지지 않도록 챙긴다. 연락은 나눠서 한다.
- 나) CÜM은 성당에 두고 다니는 교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교재다. 성당에 올 때 CÜM을 가지고 오라고 반드시 전한다.
- 다) 나눔교리 진행자는 미리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 라) 다른 친구보다 먼저와서 친구들을 기다린다.
- 마) 본당 Cell에서 CÜM을 처음 받으면, ‘하늘에서 온 편지’에 글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편지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적어준다.

## 6) 말씀 나누기 정리하기

- 가) 전체 청소년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라.
- 나) 다음 나눔 때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7) 나눔교리 변경사항

나눔에 대한 어려움교리강화를 위하여 중·고등부 나눔교리의 기존방식(말씀듣기→말씀 새기기→말씀 나누기→말씀다지기)에서 ‘말씀다지기’부분을 없애고 ‘말씀나누기’ 질문에 보기를 추가하여 보다 쉽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중등부와 고등부 나눔교리가 통합되어 있었던 방식에서 초6, 중1을 구분하여 나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주일간 느꼈던 감정을 나누어 보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나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2-중3의 경우 말씀 나누기에 보기를 제시한 질문 2개를 넣어두어 더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등6, 중등1		감정나눔	성경설화 나눔	성경구절과 실천사항
중등2 - 중등3	말씀듣기	말씀새기기	말씀나누기 (보기 제시)	성경구절과 실천사항
고등부	말씀듣기	말씀새기기	말씀나누기	성경구절과 실천사항

## 8) 나눔교리 순서

내용		시간	내용
나눔 교리 시작기도		1 분	a. "나눔교리 시작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출석호명 및 생활나눔		4 분	a. 출석 호명 뒤에 생활보고를 할 수도 있다. b. 진행자도 반드시 생활보고를 하라. c. 이 때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신변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을 노트하도록 한다.
말씀듣기 및 해설		5 분	a.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라. b. 총 두 번을 읽되, 처음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절씩 읽혀라. c. 두 번째는 전체가 함께 읽도록 하라.(진행자도 함께 읽어라.) d. 복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짚어준다. 여기서는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목표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초6,중1	감정 나눔	5 분	a. 일주일 간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 이를 붙여본다. b. 이야기를 나눈다.
	성경 설화		a. 복음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객관식or단답형)를 풀어본다.
중,고등부	말씀 새기기	20 분	a. 성경 설화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나눈다.
	말씀 나누기		a. '말씀 나누기' 질문을 다 같이 읽고, 질문을 잘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b. 진행자도 나눔에 참여하라. c. 참여자들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적극 개입하여 독려하고 이끌도록 하라.
실천사항		5 분	a. 일주일간 마음에 새길 성경구절을 정하고 실천사항을 정한다.
정리		4 분	a. 교안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거나 교안의 정리를 그대로 읽어 준다.
지도자 말씀			a. 교사는 3분 정도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라. b. 본격적인 교리가 아닌 도움말을 준다고 생각하라. c. 참여자들의 나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되짚어주면서 이 나눔과 복음과의 연관성을 일깨워주라. d.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안을 참고하되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연구하여 준비하라. e. 그 외 참여자들에게 전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라. ※ 꼭 지도교사가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
나눔교리 마침기도		1 분	a. "나눔교리 마침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총 소요시간		45 분	

## 사. Unit 운영 수칙

### 1) 지구 장, 차장의 경우

- 가) Unit 하기 전 담당 신부님, 선생님과 날짜와 장소, 그리고 시간을 상의한다.  
또한, 가능하면 참석해 달라고 정중히 청한다.
- 나) Unit 하기 며칠 전에 각 본당 Cell 의장에게 연락하여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줘야 한다.
- 다) Cell과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나눔교리를 한다.
  - Unit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그룹을 나누어 나눔교리를 진행한다.
- 라) 회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나눔교리를 먼저 해야 한다.
- 마) Unit 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다.
  - 담당 신부님과 선생님이 Unit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현황보고서를 E-mail로 제출한다.
- 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신부님과 선생님, Council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 2) Unit 회원의 경우 (본당 의장, 부의장)

- 가) Unit 하기 전 본당 신부님, 선생님께 미리 회의 참석여부를 보고한다.
- 나) Unit 회합 시 보고하거나 의논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참석한다.
- 다) Unit에서 실시하는 나눔교리를 통해 진행자의 역할을 배우고 익힌다.
  -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 본당에서 나눔교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Unit 후 본당 신부님과 선생님께 다녀왔음을 알리고, 회의 내용을 보고한다.

### ※ 지구 단위의 주일학교 행사를 지원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 지구 내 본당 개수가 많아 Unit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일 될 경우, 지구 담당 사제의 재량에 따라 본당별 의장, 부의장 중 1명만 Unit 회원으로 활동하도록 정할 수 있다.



## 4. 제52차 Leadership Training

### 가. 사랑한다는 말은

Design은 ‘생각하는 무엇(What)인가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Design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Story를 만들어나가는 Storyteller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단체, ‘Cell을 어떻게 Design 하고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LT에 참가한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본당 Cell의 Designer이고, Storyteller이며 Planner 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어 인간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인간을 트레이닝 시킨 방법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제자들을 불러 리더로서 교육했고, 그들을 파견해서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리더십 교육을 시켰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Design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을 Design했다. 예수님이 Design하시고 보여주신 Story는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였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도, 바로 여러분이 사도다.

부가고연 58대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 여러분이 그들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부가고연 58대가 제시하는 주제는 “**사랑한다는 말은**”이다.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이다. 여러분은 교회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걷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리더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표현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사도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전하며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며 그 길을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친구들과 발을 맞춰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 의사소통 강의

### 1) 의사소통이란?

#### 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개념

언어, 기호, 동작 등을 통하여 인간 간에 느낌, 생각 혹은 경험을 주고 받는 과정.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유래, 공동(common)과 공유(sharing)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함께 느낌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공동사회로 만드는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중요한 정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요소와 반응

##### ①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

-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반응

##### ② 반응

- 비언어적 반응- 몸짓이나 시간, 공간 등을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
- 언어적 반응-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다)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능

- 첫째,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시키고,
- 둘째,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교육시키며,
- 셋째, 즐거움을 주고,
- 넷째,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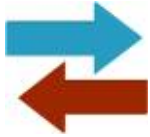
## 2) 의사소통 모형

### 가) 직선적 모형



마치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이 수신자의 반응이 무시되어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 나) 상호작용적 모형



테니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메시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이 작용하므로 두 사람이 잘 어울려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다르고 의사소통의 송신과 수신 행위가 구별되어 특정한 순간에 한 사람은 송신자나 수신자가 되므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여 와전한 모형이 되지 못한다.

### 다) 상호복합작용적 모형



의사소통자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받는다. 즉 송신과 수신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상호작용적 모형처럼 특정 순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기능한다.

## 3) 대인갈등

### 가) 대인갈등의 개념

대인갈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사소통에서 대인갈등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갈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다. 또한 우연적 삶의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를 맺고 행위하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인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대인갈등의 원인

- ① 대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불명확성이나 부재, 모호한 책임 영역, 이해상충, 의사소통의 장애, 의견불일치, 모호한 의사소통
- ②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사회 문화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어진 개인의 내적 태도에서 야기되는 대인 상호간의 지각차이

## 다) 대인갈등 해소 양식

갈등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 ① 역기능 : 순전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사회의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 파괴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 그러므로 파괴적인 갈등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견해.
- ② 순기능 :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갈등이 균형적인 것이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견해.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필요하다는 견해.

## 라) 대인갈등은 하느님의 선물

대인갈등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갈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갈등을 가지게 하신 것은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신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존중 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의견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같게 만드셨다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모두가 하나처럼 생각하고 행동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화합과 일치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이란 하느님의 커다란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들

### 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 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 ② 거부, 무시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 ③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 할 때
- ④ 표현 요령이 서투르기 때문에

## 나)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

- ① 자기입장, 자기 기분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 ② 가치관이나 신앙, 신념차이 때문에
- ③ 선입견 때문에

## 다)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

- ① 가치관 차이    ② 입장의 차이    ③ 과거 경험    ④ 감정

## 라) 잘 못 길들여진 버릇들

- ① 자기 기준으로 보기    ② 지적하기    ③ 뺏내기    ④ 혼자 떠들기    ⑤ 말 가로막기/끼어들기    ⑥ 무시하기    ⑦ 비꼬거나 빈정대기    ⑧ 땀전 피우기

## 5) 말의 힘

- ① 긍정적인 말(사랑해, 고마워)    ② 부정적인 말(바보야, 네가 싫어)
- 위의 ①, ②의 말을 양파와 물에 했을 때 성장속도와 모양이 달라진다.

## 6) 공감하기

- ① 짧은 문장일 경우는 다시 말하기
- ② 긴 문장일 경우는 명료화 하기
- ③ 상대방이 존경 받는 느낌이 들도록 공감하기

## 7) 경청하기



[ M E M O ]



[ M E M O ]

[ M E M O ]

[ M E M O ]

[ M E M O ]

[ M E M O ]

\_\_\_\_\_지구 \_\_\_\_\_성당

이름(세례명) : \_\_\_\_\_ (\_\_\_\_\_)